

선지자 (열왕기하 7:1-8)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시대를 살린다. 그 사람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인생이 운명에서 나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는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증거는 인생을 정복하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놀라운 일이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어둡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하였다. 세상이 이렇다. 해는 떠도 어둡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믿고 구원 받는 정도가 아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을 살릴 아주 중대한 사명과 권세가 이 복음 안에 들어 있다.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보혈 안에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언약으로 잡은 자의 인생은 이렇게 된다. 놀라운 일이다. 언약으로 잡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계속 온다. 증인될수 있는 문도 계속 열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피를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은 인생을 저주에서 건진다. 성경은 길어도 메시지는 간단하다.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은 모든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는 것이다. 영혼 구원 뿐 아니라 육신적 문제에서도 건진다. 이렇게만 살면 된다. 그러면 자기 인생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건진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의 피가 언약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봤는데 잘 안 잡히는 것이다. 사단이 방해를 해서 그렇다. 내가 싫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이 보혈을 언약으로 선포해야 하고 안 믿어져도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온다. 사단이 죽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보고 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누림으로 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단을 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다. 이 일을 땅 끝까지 하고 24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망대, 이정표, 여정 나오는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를 따라 되어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한해가 되기 바란다.

1. 선지자

이스라엘과 아람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아람은 큰 나라이다. 전쟁은 계속 했지만 아람이 이기지 못했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기지 못할 전쟁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 백성이 깨달으라고. 우상숭배를 자꾸 하니까 내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나라 군대를 계속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열왕기하 6장 8-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나온다. 아람군대가 쳐들어 왔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다. 그런데 아람군대의 전체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다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왔다. 그때 왕이 엘리사에게 다 죽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서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돌아갔다.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았으면 적어도 한참은 안 쳐들어와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쳐들어왔다. 굉장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말이다. 나야만 장군 고쳐준것만 해도 큰것인데, 또 쳐들어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계속 쳐들어가서 어렵게 만들어라.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눈 뜨고 돌아올때까지.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믿는가?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가? 다른 설명이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은 니가 완전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니가 완

전 그리스도면 문제는 계속 와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바뀌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돌아와라.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런데 안 돌아온다.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그러면 사마리아성에 양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 죽는 것이다. 6장 25절에 보면 그 결과 먹지 않을 것을 먹게 되는 것이다. 한 세겔은 노동자가 3일정도 일하면 버는 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둘기 통 한갑이 노동자가 20일 일하여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다. 28절에 보면 더 기가막힌 일이 있다. 한 여인이 와서 왕에게 도와달라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여자가 와서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의 아들 데려오라니까 그 여자가 안데려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일이 있을수 있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왕은 왜 이런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정도가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 6장 31절에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엘리사 죽이려고 장관을 하나 보냈다. 그런데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한 말이 오늘 1절 말씀이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7킬로그램)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는 것이다. 비둘기의 변을 먹고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기적이나 다름 없다. 이 말을 들은 장관이 한 말이 2절인데,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이런 일 생길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엘리사가 말하기를 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니가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 나병환자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병환자는 동네안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비둘기의 변을 먹고 아이를 잡아 먹는 엄마 시대에 나병환자가 눈에 들어오겠는가? 이 사람들이 물꼬가 된 것이다.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는 어디가도 죽는다. 잘 살아도 죽는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 성안에서도 먹을게 없고 아람사람에게 잡혀도 죽으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죽자고 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래도 그 안에 먹을 것은 있으니까. 그래서 아람군대 진영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군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람군대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스라엘이 헛이나 애급의 용병을 데리고 오는 줄 알고 도망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나병환자들이 들어가서 빈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금은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 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 나병환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만 이러면 안된다, 백성은 굶어죽는데, 그러면서 왕궁에 알리게 된 것이다. 왕궁에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왕들은 우상숭배하면 의심이 많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 이후에 보면 왕이 저쪽 전술이다,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가서 살펴보라고 한 후에 가보니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여기저기 흘려놓은 것을 보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노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7장 16절에 엘리사의 말대로 밀가루가 한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왕이 자기가 의지한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정신없이 들어오다가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 장관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나야만 치료된 것도 그렇고,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왕은 진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연속으로 주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구별된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 것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만 보인다. 우상숭배가 극심한 중에도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전히 기적의 연속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 중심이다. 우리 안에도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 그래도 답이 무엇인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은 아합왕 시대에도 있었다. 아합왕도 우상숭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인간이었다. 3년간 비가 안와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사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말씀 받을 엘리야가 거기 있었다. 그 말씀이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었다. 소동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죄를 봤으면 벌써 다 죽었어야 한다. 그런데 소동 고모라의 죄가 기준이 아니라 그들을 구할 말씀을 전달할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라는 것이다.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한다.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 주위에 역사 일어난다. 자기 인생도 당연히 저주에서 나온다. 그래야 증인되니까. 그래야 이것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게 증거를 주신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라. 모든 선지자가 그랬다. 그들의 주 임무가 무엇인가? 말씀을 잡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거기에 그들의 모든 역사가 다 있었다.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다.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 시대를 살린 것이다. 모세가 그랬다. 받은 말씀으로. 다니엘 사도바울, 요셉 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70억 인구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선 자다. 이것이 망대이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70억 중에 말씀을 받기 위해 선 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미있지 않는가? 이것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 세상에.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는 칼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단지 말씀 받고 전달하고 그것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간단하다. 나도 말씀을 받는 것이다. 내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세상에 눈꼽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다. 설사 줄 수 있다 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영향이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봐야 한다. 이 시대를 두고 말씀을 받는자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 남미의 모든 흐름을 뒤집는 것이다. 누가? 내가. 그 사람이 말씀을 받기 위해 선 사람이다. 이것이 망대이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설명되지 않은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 예사로 듣지 않기 바란다. 당연히 우리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기때 복음 만큼 내 인생이 될 것이고 복음만큼 내 전도가 될 것이다. 내 복음만큼 내 경제가 될 것이다. 많은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흘림이니까.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 다 버려야 한다. 괜히 불신앙 때문에 그 장관처럼 죽을 이유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진자의 권세이다.

2. 큰 그림, 큰 기도, 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 나도 이 시대를 두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다. 엘리사가 이런 선택을 받았고, 얼마전에 본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이런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0.1%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언약을 딱 잡아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림을 크게 그리고 기도도 크게 해야 한다.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뱀의 머리는 박살이고 저주에서 해방이다. 이것을 전하는 곳에 그 약속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 보혈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약속의 피, 창세기 3장 21절부터 계속 내려오는 십자가의 성취된 그 언약의 피를 잡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을 잡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하는지. 딱 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답으로 준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세상을 능가하고 정복할만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계속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대를 이어 넘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지속될지는 모른다. 백년 같지, 이백년 같지 오백년 같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시작세대로 불

렀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되겠냐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렇게 되겠냐. 그러면 너는 답이 있냐? 답도 없는 게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지. 잘난 소리 하면 당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잡아야한다.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이다. 불신앙하면 안된다. 자기만 손해이다. 왜 자기가 손해될 짓을 하는가? 속아서 그렇다. 사단의 역사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림을 크게 그리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림을 크게 그리게. 중요한 기도제목이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분명히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애타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에 대한 많은 증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본다. 요셉과 다니엘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노예였고 포로였다.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가? 이것은 노예 인생, 포로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완전한 답이다. 어디 포로되어 있는가? 노예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답이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장인어른의 양떼나 돌보는 아무것도 아닌 숨은 엘리트였다. 공부는 그 시대의 하바드 대학교 졸업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양치기였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완전 180도 바뀌었다. 평범하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인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도바울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시대적인 인물정도가 아니다. 시대를 뛰어 넘은 인물이다. 사도바울같은 사람은 없다. 문화를 새로 만들었다. 시대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다. 시대를 뛰어 넘은 인물이다. 성경이 말한 최고의 인간 표본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이다. 돌아와서 바울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용하라는 것이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라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잡아야 할 중요한 기도제목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 우리도 것처럼 시대를 바꾼다. 우리도 그가 한 것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미국에 귀신 문화 뒤집는다.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영적 역사를 뒤집게 하옵소서.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한다. 그냥 허튼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언약이 되어지면 그림이 된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집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 큰 그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단하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분명 복음만큼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이유없는 일 안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대적인 복음 주셨는가? 그 복음을 받아도 우리는 연약한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엘리사는 말씀 말고는 전부 언약했다. 그의 기도세계는 감절의 영감이고, 그것 말고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기적이 연속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을 박살내신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속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발견되기 바란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혈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깨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잡아라. 그리고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언약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끝을 딱 내놓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답은 완성되었다. 믿는가?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른 것으로 살면 당한다는 뜻이다. 주님이 다시 죽으실 이유도 없다는 뜻이다. 언약은 우리 모두의 근본 망대이다. 기도는 누리의 망대이다. 그러면 여정에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정표가 내게 시간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눈이 열려서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2024년 올해가 벌써 한달이 지나갔다. 올해가 우리 인생중에 가장 큰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